

新世界 韩国语系列教材
신세계 한국어 시리즈 교재

韩国语阅读

한국어 읽기

徐永彬 总主编
朴淑子 编 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Press

新世界

韩国语系列教材



总主编 徐永彬

韩国语阅读

한국어 읽기

朴淑子 编著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中国·北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韩国语阅读 / 朴淑子编著. —北京: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12

新世界韩国语系列教材 / 徐永彬总主编

ISBN 978-7-5663-0542-8

I. ①韩… II. ①朴… III. ①朝鲜语 - 阅读教学 - 教材 IV. ①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2) 第 257820 号

© 2012 年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出版发行

版权所有 翻印必究

韩国语阅读

한국어 읽기

朴淑子 编著

责任编辑: 胡小平 安太顺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北京市朝阳区惠新东街 10 号 邮政编码: 100029

邮购电话: 010-64492338 发行部电话: 010-64492342

网址: <http://www.uibep.com> E-mail: uibep@126.com

北京市山华苑印刷有限责任公司印装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成品尺寸: 185mm × 230mm 10.75 印张 228 千字

2012 年 10 月北京第 1 版 2012 年 10 月第 1 次印刷

ISBN 978-7-5663-0542-8

印数: 0 001 - 3 000 册 定价: 26.00 元

出版说明

自中韩建交以来，两国在政治、经济、文化、教育等领域进行了广泛而深入的交流。在这样的大背景下，中国的韩国语教育取得了长足的进展，国内许多高校设立了韩国语专业，而对韩国语教材的需求也日益增大。

根据大学韩国语专业的课程设置，结合多年教学、科研的经验，对外经济贸易大学一批优秀教师精心编纂而成了这套韩国语教材——新世界韩国语系列教材。到目前为止，本套教材共六册。这些教材包括：商务韩国语、韩国语听说、韩国语阅读、韩国语写作、韩汉翻译理论与技巧、韩国概况。

本套教材注重完整性、科学性，以开发培养复合型人才为目的，将听、说、读、写合为一体。教材的编写具时效性、新颖性，所采用的都是韩国最新的语言资料。教材内容题材广泛，生动形象，实用性强。

本套教材既适合高校韩国语专业的学生，也适合广大韩国语爱好者。相信本套教材能为韩国语学习者带来帮助。

对外经济贸易大学出版社

2012年10月

前言

《韩国语阅读》是面向学习韩国语的中国人的阅读教材。

编者认为学习者阅读的目的不仅仅是为了提高阅读和理解能力,更重要的是在于提高人文素养的同时学会沟通。为此本教材选课文时注重采用有深度、有思想、有文化内涵的文章,让读者阅读后有所思、有所悟。

本教材由 20 篇文章构成。每篇文章包括课文、单词解释、阅读理解、阅读思考四个部分。

阅读理解主要通过问答题、填空题、判断题、选择题、词汇连线题、讨论、写作等多种形式帮助学习者进一步理解课文内容,提高阅读能力。

阅读思考是用课文之外与课文内容互补的各种文章来扩展知识,使学习者能够在阅读后根据问题引发思考。

每篇课文的练习题、阅读理解等在教材最后提供参考答案,便于学习者课前预习与课后复习,也使教师讲解有依据。

此外,每篇课文均附有参考译文,帮助学习者更好地理解。

本书的编写参阅了国内外的大量阅读教材和书籍,也采用了韩国人的讲演稿和网络上撰写的文章,在此表示感谢;同时还要感谢我的研究生金玉花、金银花、张晓云以及家人对本书编写所做的大力协助。

因成书时间仓促,书中难免会有错误与不妥之处,恳请专家、学者及广大读者给予批评指正。

编 者

2012 年 5 月

目 录

제 1 과	봄비의 나들이.....	1
제 2 과	임금님의 밥상.....	7
제 3 과	결혼식 들러리.....	11
제 4 과	음악과 공부	17
제 5 과	약손	23
제 6 과	마음가짐이 인생을 바꾼다.....	29
제 7 과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윈프리	35
제 8 과	가난한 날의 행복.....	41
제 9 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	49
제 10 과	올바른 습관은 머슴도 지도자로 만든다.....	55
제 11 과	봄을 가지고 온 아이	63
제 12 과	연애의 기술	69
제 13 과	희망을 분양합니다.....	77
제 14 과	배용준 씨, 고맙습니다.....	85
제 15 과	엄마를 부탁해.....	91
제 16 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시각.....	99
제 17 과	경제를 이해해야 세계가 보인다	107
제 18 과	방황	113
제 19 과	장수식단	119
제 20 과	수학이 모르는 지혜	125

第一课	春雨的郊游	133
第二课	国王的餐桌	134
第三课	婚礼花童	135
第四课	音乐与学习	136
第五课	药手	137
第六课	心态改变人生	137
第七课	脱口秀女王——奥普拉·温弗里	138
第八课	贫穷岁月的幸福	139
第九课	怜爱慈悲之心	140
第十课	良好的习惯能让长工变成领导者	141
第十一课	带来春天的孩子	142
第十二课	恋爱的技巧	143
第十三课	分享希望	144
第十四课	裴勇俊，谢谢你	145
第十五课	拜托妈妈	146
第十六课	多样化的思考角度	147
第十七课	理解经济才能看得见世界	148
第十八课	彷徨	149
第十九课	长寿食谱	150
第二十课	数学不知道的智慧	151
参考答案		153



제 1 과

봄비의 나들이

봄비가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보슬보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 봄 소식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눈아, 내가 왔어.”

응달에 내린 봄비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무 게으름을 피웠군.”

쌍엇던 눈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흙아, 문 열어 봐.”

꽃밭으로 간 봄비가 말하였습니다.

“어머, 어서 와.”

흙이 방실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꽃씨야, 싹 틔울 준비를 해야지.”

흙 속으로 들어간 봄비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 몸을 촉촉히 적서 줘서.”

꽃씨가 서둘러 연둣빛 싹을 틔웠습니다.

“개구리야, 그만 자렴.”

개구리네 굴 앞에서 봄비가 소리쳤습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다 갔니?”

개구리가 굴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봄비는 들로 나갔습니다. 꿈꿈 언 냇물을 깨우고, 앙상한 버들 가지도 깨웠습니다.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고, 버들 가지는 통통하게 물이 올랐습니다.

봄비는 산으로 갔습니다.

“왜 인제 오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진달래가 분홍빛 꽃망울을 내밀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리나무와 상수리나무도 덩달아 초록빛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제 봄 소식을 다 전했나?”

봄비는 상수리나무 가지 끝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참! 영철이하고 순이를 잊고 있었네.”

봄비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도련님, 제가 왔어요.”

봄비가 푹푹푹 영철이 방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봄비가 온다!”

영철이가 창문을 활짝 열고 외쳤습니다.

“어디, 어디?”

앞집 순이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새싹 좀 봐!”

“어머, 개구리도 나왔네! 우리가 3학년이 됐다고 축하해 주나 봐.”

순이와 영철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 새 단어

나들이	出门; 郊游
응달	背阴地, 阴凉处
게으름을 피우다	偷懒
녹다	融化
방실거리다	微笑



흙	泥土
틔우다	使发芽
가만히	悄悄地
속삭이다	咕唧
서둘다	赶忙; 忙着; 赶紧
촉촉히	滋润; 潮湿
연둣빛	浅绿色
꽁꽁 얼다	冻结
앙상하다	凋零; 削瘦
버들 가지	柳枝
통통하다	胖乎乎; 圆嘟嘟
물이 오르다	(树枝)有了水分
반가워하다	高兴; 愉快
오리나무	桤木
상수리나무	柞树
덩달다	跟着; 盲从; 随大流
두드리다	敲
활짝	敞开; 盛开
외치다	喊叫

● 읽기와 이해 I

1. 본문의 내용에 따라 아래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1) 봄비는 누구에게 봄 소식을 전했습니까?

- ① 눈과 흙
- ② 꽃씨와 개구리
- ③ 진달래
- ④ 오리나무와 상수리나무
- ⑤ 영철이와 순이

2) 흙 속으로 들어간 봄비는 꽃씨에게 어떻게 속삭였습니까?

- ① “꽃씨야, 싹 틔울 준비를 해야지.”
- ② “빨리 일어나, 꽃씨야.”

- ③ “나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꽃씨야.”
- ④ “고마워, 내 몸을 축축히 적서 줘서.”
- ⑤ “꽃씨야, 그만 자렴.”

3) 봄비는 들로 나가서 누구를 깨웠습니까?

- ① 영철이와 순이
- ② 개구리
- ③ 꿈꿈 언 냇물과 앙상한 버들 가지
- ④ 흙
- ⑤ 눈

4) 아래 글에서 반가워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문장은 어느 것입니까?

- ① “흙아 문 열어.”
- ② “왜 인제 오니? 얼마나 기다렸는데.”
- ③ “개구리야 그만 자렴.”
- ④ “도련님, 제가 왔어요.”
- ⑤ “눈아 내가 왔어.”

5) 이 글에서 사람이 아닌데도 사람처럼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봄비
- ② 흙
- ③ 꽃씨
- ④ 개구리
- ⑤ 진달래

2.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1)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는 이 세상에 봄 소식을 () .

전하다 피우다 열다

2) 봄이 되자 시냇물은 () 노래하면서 흘러갔습니다.

돌돌 졸졸 찰찰 짹짹 킁킁

3) 봄이 되자 들에는 새싹이 () 돋아났습니다.

뽕뽕뽕 사르르 툭툭하게 졸졸 보슬보슬



4) 딸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얼굴에 ()
이 활짝 피었습니다.

함박꽃 웃음꽃 주름 눈웃음 기쁨

3. 봄 소식을 듣고 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기

눈: 눈이 사르르 녹았다.

흙:

꽃씨:

개구리:

시냇물:

버들 가지:

진달래:

오리나무와 상수리나무:

4. 새 학년에 올라 가는 것과 새싹이 돋아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읽은 후 생각하기

보리

너는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논과 밭에는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차가움이 엉킨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날날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

옛 늙은이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 속에 묻고, 이제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보릿속에
간직하며, 차가운 허리도 잊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온갖 벌레들도, 부지런한 꿀벌들과 매미들도 다 제 집 속으로 들어가고, 몇
마리 산새들만이 나지막하게 울고 있던 무덤가에는, 온 여름 동안 키만 자랐던

속새풀 더미가 갈대꽃같은 송곳만을 싸늘한 하늘에 날리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춡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른 잔디가 솔잎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이 산등성이에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덮는다.

보리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에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새말간 봄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온 겨울의 어둠과 추위를 다 이겨 내고, 봄의 아지랑이와 따스한 햇볕과 무르익은 그윽한 향기를 온 몸에 지니면서, 너, 보리는 이제 모든 고초와 사명을 다 마친 듯이 고요히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성자(聖者)인 양 기도를 드린다.

이마 위에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농부는 기쁜 얼굴로 너를 한아름 덩씩 안아서, 낮으로 스르릉스르릉 너를 거둔다. 농부들은 너를 먹고 살고, 너는 또한 농부들과 함께 자란다.

너, 보리는 그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자라나고, 또한 농부들은 너를 심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보리, 너는 항상 순박하고 억세고 참을성 많은 농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흑구 「보리」에서 발췌)

※ 이 글의 주제를 개괄해 보십시오.



제 2 과

임금님의 밥상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계셨어요. 임금님은 몸이 뚱뚱해져서 걱정이 생겼지요.

“허허,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을까?” 옆에 있던 왕비님이 말했어요.

“임금님,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 보세요.” “허허, 운동?”

“네, 매일 운동을 하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살도 빠지실 겁니다.”

“왕비의 말대로 하겠소.”

임금님은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을 하셨지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진지를 드시는데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여봐라! 요리사를 어서 들라 이르라.”

“예,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오냐, 네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지었으니 상을 주어야겠다.”

임금님은 요리사에게 상을 주려고 하였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쌀가게 주인이 좋은 쌀을 주었으니 쌀가게 주인에게 상을 주어야 합니다.”

요리사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쌀가게 주인을 불러와 상을 주려 하였어요.

“너에게 상을 주어야겠다.”

“아닙니다. 임금님, 시골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좋은 쌀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를 불러 왔어요.

“임금님, 저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께서 뜨거운 햇볕과 비를 내려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되었으니 신이 상을 받으셔야 하지요.”

“그래, 알았도다.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로다.”

이리하여 임금님은 모두에게 큰 상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 새 단어

임금	国王; 皇帝
입맛	胃口; 食欲
왕비	王妃
튼튼하다	结实; 壮实
빠지다	掉; 脱
들다	入; 进

● 읽기와 이해

1. 본문의 내용에 따라 아래 물음에 답해 보십시오.

1) 임금님은 왜 걱정이 생겼습니까?

- ① 몸이 말라서
- ② 날씬해져서
- ③ 뚱뚱해져서
- ④ 바빠져서
- ⑤ 할일이 많아져서

2) 왕비는 임금님에게 어떻게 권고하였습니까?

- ① “임금님,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 보세요.”
- ② “임금님, 진지를 적게 드셔야 합니다.”
- ③ “다이어트에 필요한 약을 드셔야 합니다.”
- ④ “중국의 자스민차를 드셔야 합니다.”
- ⑤ “매일 운동을 하시면 몸도 튼튼해지고 살도 빠지실 겁니다.”



3) 임금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했습니까?

- ① 요리사
- ② 시골 농부
- ③ 쌀가게 주인
- ④ 뜨거운 햇볕과 비를 내려 주신 신
- ⑤ 왕비

4) 이 글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 ② 자기가 무엇이나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 ③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 ④ 남의 공로를 차지하려는 사람
- ⑤ 마음이 착한 사람

2. ‘보기’의 문법적 설명을 참고하여 예문에서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보기

‘도다’와 ‘로다’는 헤라클레스의 종결어미로서, ‘도다’는 용언 뒤에 쓰이어, [옛말의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권위적으로 감탄조로 기술하거나 [글말에 쓰이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말함을 나타내며, ‘로다’는 “이다/아니다”에 쓰이어 어떠한 사실을 감탄조로 예스럽게 말함을 나타낸다.

- 1) 알았도다.
- 2) 오, 반갑도다.
- 3) 어허, 시끄럽도다.
- 4) 죄를 가려 마땅한 벌을 주셨도다.
- 5)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조화로다.
- 6) 나와 하늘과 푸른 산뿐이로다.
- 7) 이런 일은 네가 알 바 아니로다.
- 8)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로다.

3.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을 한 마디씩 적어 보십시오.

- 1) 임금:

- 2) 왕비:
- 3) 요리사:
- 4) 쌀가게 주인:
- 5) 시골농부:

4. 다섯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본문의 내용으로 역할극을 해 보십시오.

읽은 후 생각하기

감사할 거리를 발견할 줄 알기로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인다는 막소리대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지금 내 생활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리를 찾으려 들지 않는다. 내 것은 남의 것보다 덜 좋아보이기 때문에 늘 불행감을 떨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일조차도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스러워 불평을 하다가는 그것마저 잃어 버리기도 한다.

나는 어려서 내 모든 것을 불행스러워했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철없던 시절의 내 모든 불행감이야말로 내 문학을 위한 축복의 토양이었다고 이제야 자신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그럴듯 불행스러워했던 성장기에 감사한다. 내가 증오하던 술한 이들과 억울하게 느껴지던 모든 것에 나는 감사한다. 감사란 발견하기 나름이라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을 두고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불만스러워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우치지 못함이 아니고 무엇이랴.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일 게다. 같은 사실을 두고서도 고마워하는 이는 늘 행복한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며, 꼭 같은 사실을 불행스러워 하는 이는 아무리 축복해 주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행하게 여길 사람이 아닐까? 내가 신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복주고 사랑할까?

(유안진 글)

※ 위의 글을 읽고 자신에게 감사했던 사람과 관련시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